

방통위,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시행에 따라 지역방송 현장 간담회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8일 오후 지역방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민영 방송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방송(TJB)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인 부위원장(방통위 지역방송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수립한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4~’26년)’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역방송 현안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지역 민영 방송사 대표들은 신규미디어 등장과 방송 광고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방송이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제작·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계획에 담긴 내용 외에도 지역방송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최대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방송 스스로도 경영개선 등을 위해 지역맞춤형 특화전략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성욱	(02-2110-1450)
	지역미디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혜	(02-2110-1451)